

퇴원환자, 집에서도 안심...마포구, 병원·지역 잇는 돌봄 협력 구축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을 다지고, 돌봄 공백 없는 실뿌리복지를 구현하고자 마련

기사입력 2026.03.27 17:40:15 | 최종수정 2026.03.27 17:40:15 | 안용호 | ahnsbook@naver.com



마포구청 중회의실에서 퇴원환자 돌봄통합연계 협력병원 협약식이 열렸다. 사진=마포구청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은 3월 27일 오후 4시 30분, 마포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퇴원환자 돌봄통합연계 협력병원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을 다지고, 돌봄 공백 없는 실뿌리복지를 구현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이번 협약은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환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와 연계하고, 의료와 복지가 함께 작동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에스엠씨요양병원, 서울연세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신촌연세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돌봄통합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협약에 따라 마포구와 협력병원은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 확대 등으로 병원에서 퇴원한 주민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입원부터 퇴원, 지역에서의 일상생활까지 이어지는 든든한 지역 돌봄의 연결고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안용호 (ahnsbook@naver.com)

© 2004~2024 Copyright by CNBNEWS. All rights reserved

창닫기

인쇄하기